

Domus

2004년 6월

▶ OMA의
Seattle Central
Library

다음의 키워
드는 Seattle
Library에서
OMA가 의도한
것과 보여주고
자 한 것을 잘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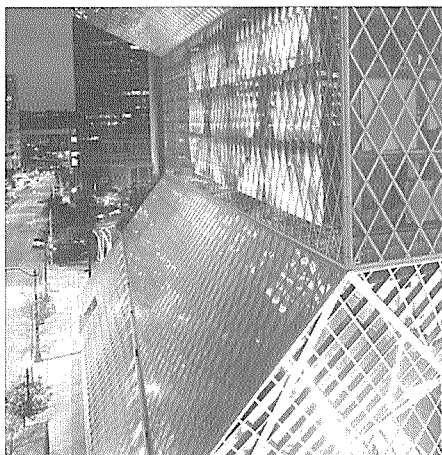


- 정의

도서관은 지식과 엘리트주의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사실이 아니라, 초대하는 장소이며, 안락하고 항상 문이 열려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도서관은 지역 공동체의 허브이며, 도시의 삶을 통합하는 부분으로서 재 정의 되어야 한다. Rem Koolhaas는 도서관 안에 도시 부랑자의 거처, 서점, 극장, 티켓 오피스, 푸드코트 등이 있으면 안될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반문한다. 도서관은 교류의 중심지이다. 다 시말해 근대의 광장-day agora-이다.

- 유연성

시애틀의 스포츠 경기장이자 전시장이었던 Kingdom은 그 용도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flexibility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OMA는 모든 용도, 모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장소는 만들지



Seattle Central Library

않았다. 도서관은 쓰임에 맞는 장소들로 이루어진다. 특정한 공간과 프로그램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것이다. 너무 경직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유연성 있지 않은 방식으로.

- 특성

환영하고 친근하면서도, 시애틀의 중심도서관으로서 거대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으로 도서관은 설정되었다. 고전적인 카네기 멜론 도서관이나 낮고 평평한 커뮤니티 센터의 모습이 아닌 그 중간의 형태를 추구하였다. 배타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그 정체성을 두었다.

- 시각/문자 자료

시애틀 공공 도서관은 문자 자료뿐 아니라 시청각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비디오, 이미지,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등,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들이 무시했던 팝문화적인 아이템들이었다. Rem Koolhaas는 "도서관은 시각적인 것으로 문화의 중심이 이동하는 현상에 대해 적응하고 그것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기술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이 도서관은 기술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는 시애틀의 위상을 반영할 것이 요구되었다. Wired 잡지의 Brad Wieners는 도서관 디자인은 web의 은유에서 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가상현실에서 향해하듯이 이용객은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아 탐색할 것이다.

- 아우라 (Aura)

가상현실의 시대에 새로운 매체는 오직 책의 아우라-물질성, 즉각적인 접근, 찾아보기 편리함, 촉각의 발생과 그것이 내포한 기억 등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것은 패러독스이다. 시애틀 공공 도서관은 책을 대상으로서 보고 그것을 제거하여 디지털 미디어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도서관의 역할이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열람실은 실제 책의 아우라를 강화시킨다. 실제 책은 새로운 건축 안에서 보존될 것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될 것이다.

- 반즈 앤 노블즈 효과 (Barnes & Nobles Effect)

Rem Koolhaas는 Barnes & Nobles가 실제적

인 도서관이라고 언급하였다. 사람들은 책을 사고 그것들을 읽고 반환한다. 보다 덜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서점은 도시의 봄비는 장소이다. 그 자체로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도서관은 Barnes & Nobles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다.

- 시애틀 성 (Seattl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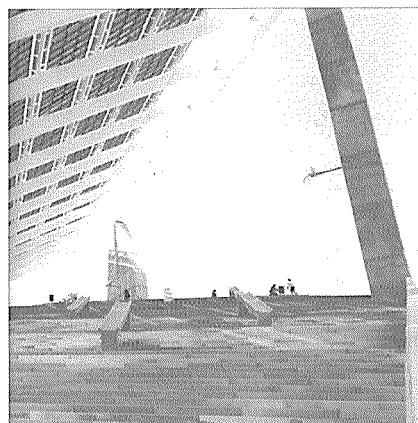
새로운 도서관은 반드시 시애틀을 위한 도서관이어야 한다. OMA의 목표는 시애틀의 다양한 문화-마이크로 소프트웨어 Grunge에 이르기까지를 아우르는 건축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너무 튀지 않은 방법으로 시애틀성(性)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기념비적인 것은 거부하고 편안함과 단정함이라는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 도서관은 시애틀의 센터피스이며 다운타운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물은 반드시 시애틀의 정신을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 Forum 2004 Barcelona

관광객을 위한 테마파크인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공공 공간인가? 카탈로니아 태생의 건축가 Joan Roig의 인터뷰를 통하여 최근 완공된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Stefano Boeri : 현재 당신이 생각하는 공공 공간의 의미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

Joan Roig : 요즘은 공공 공간을 도시의 수직적 적층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지하에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그 위에 광장에 있으며 광장 위에 또 하나의 레이어가 매달려 있는 구조이다. 이 레이어는 물이 될 수도 있고(Herzog



Forum 2004 Barcelona

de Meuron의 대회의장), 빛이나 태양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Torres and Lapeña)

SB : 바르셀로나에서 당신이 말하는 공공 공간은 미리 정해진 용도가 없는 불확정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인가?

JR : 80년대와 90년대의 공공 장소의 계획에서는 공간의 기능적인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모델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에서 용도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귀엘 공원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 오늘날 그곳은 아주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으며, 어떤 특정한 용도를 정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은 이 포럼의 계획에서도 유효하다.

Architectural Review

2004년 6월

■ 예술을 위한 건축

갤러리와 박물관은 소수의 지식인과 귀족을 위한 사적인 시설에서 공공을 위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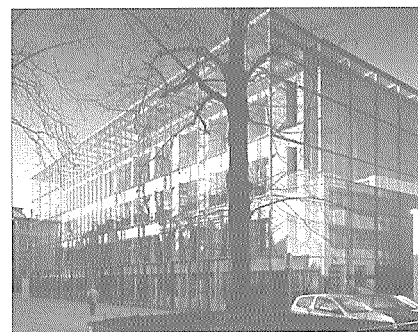


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극장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예술의 민주화는 지난 반 세기 동안 위대한 건축물을 발생시켜왔다. 텔레비전의 위력은 예술을 위한 건물을 변화시켰으며, 예술 그 자체의 속성에 영향을 미쳤다. 텔레비전은 일상에 반대하고 즉각적인 자극에 대한 열망을 발생시켰다. 예술은 이 현상을 받아들였고, 그 예술을 수용하는 건축 역시 놀라움과 충격 요법을 도입하였다. 그 대표적 예는 Liebeskind의 박물관으로 건물 자체는 내용물을 압도하였으며, 전시 경로에서의 경험은 놀라움과 충격을 동반한다. 그러한 장치는 1933년과 1945년 사이의 유대인 학살의 공포스러운

경험을 환기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을 입다물게 하고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한다. 이와는 대비되어서, Frank Gehry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LA의 콘서트 홀은 놀라움과 충격을 주면서도 도시와 예술의 요구에 잘 대응하고 있다. 빌바오 미술관은 다소 단조로운 작은 도시에 시각적 중심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LA의 디즈니 홀은 반 도시적으로 유명한 LA 다운타운에 새로운 방향점을 제시함으로써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하는 동시에 야외 산책로등의 다양한 공공 공간을 제공하였다.

▶ Architektengruppe Stuttgart의 독일, Bonn, Rhineland Regional Museum

이 박물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남측 파사드의 처리이다. 유리로 된 외벽은 목재 벽의 레인스크린이 되는 동시에 외기에 대하여 완충공간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 유리벽은 지붕에 까지 이어져서 완전히 유리 케이스를 형성한다. 그것은 단순히 박물관의 상징적 외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전이공간을 형성한다. 노을을 감상할 카페테리아를 위한 반 외부공간이나 반 야외 전시설이 되기도 한다. 안쪽의 목재 파사드는 유리 케이스와 대비를 이루는데, 반쯤 열린 서랍이 비틀어져 있는 형태로 그 열린 틈사이로 창이 형성된다. 실제 창은 매우 좁은데, 이 목재 벽으로 인해 그 크기가 과장되어 나타난다. 이는 내부로 연장되며 측면으로부터 오는 빛에 의해 목재의 질감은 더욱 강조된다. 전이 공간을 통하여 또 다른 유리벽을 지나면 주계단이 있는 아트리움이 나오며 상부로 각 전시실로 이어지



Rhineland Regional Museum

는 램프며 복도가 지나가게 된다. 아트리움은 이 건물의 심장이며, 방향성을 알려주는 장소로서 클리어스토리 창과 천창만으로 빛이 유입된다. 전시는 기존의 연대기적 전시에서 벗어나서 '시대', '권력', '야생에서 도시로', '신들에서 유일신으로', '발견의 비밀', 'Rhine-land와 세계' 등의 9개 주제 아래 구성되었다. 큐레이터는 역사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도시에 대해 인식하기를 원했고, 건축가들로 하여금 밖으로의 조망을 위한 장치를 만들게 장려하였다. 이에 따라 유물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주광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으며, 목재 스크린 장치가 그 해결안으로 제시되었다.

▶ Herzog de Meuron의 스페인 Jerez, 플라멩코 센터

플라멩코는 안달루시아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Jerez는 플라멩코의 발원지이자, 그 정신적인 원류가 흐르는 곳으로서, 유명한 플라멩코 댄서를 무수히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심을 재개발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민속 예술의 활동의 중심이 될 City of Flamenco에 대한 현상설계가 실시되었으며 Herzog de Meuron이 당선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가지 문제점을 풀어야 하는데, 작은 스케일의 건물과 미로같은 거리조직의 고밀도 도시조직 안에 거대한 새로운 볼륨을 삽입해야되는 것과 현대적인 방식으로 플라멩코의 전통을 재 해석해 내어야 하는 것이다. Herzog de Meuron은 Alcazar 버전의 플



플라멩코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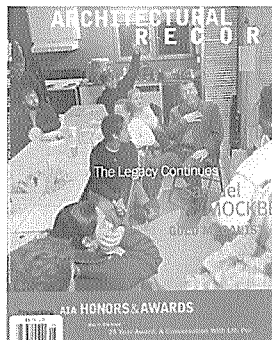
라멩코 센터를 제시하였다. 콤플렉스를 담장으로 감싸고 건물을 반사하는 연못과 오렌지 나무로 이루어진 정원이 중앙에 마련되었다. 역사적 도시의 중심에 요새인 동시에 낙원이 자리잡아, 공공 공간으로서 가능하게 되었다. 아라비안 기하학과 안달루시아 장식을 연상시키는 문양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담장벽은 현대적 의미로는 그래피티 문화와 연결되기도 하며 패턴의 리듬감은 플라멩코의 리듬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6월

■ AIA Award 2004

4월 22일 AIA의 환경분과는 일곱 번째로 올해의 TOP 10 Green Project를 발표하였다. 신축과 리노베



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선정되었다. 선정의 주된 관점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의미를 두었는가이다. 아울러 25년상은 세워진 이래 근대 건축의 아이콘이며 도시의 기념비물로 자리매김한 I.M. Pei의 미국 국립 미술관에게 주어졌으며, AIA Gold Medal은 Samuel Mockbee에게 돌아갔다.

■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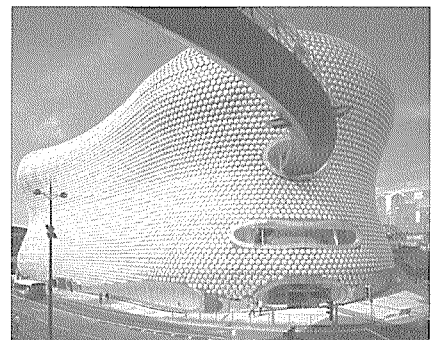
▶ Future System의 영국 Birmingham Selfridge 백화점

"비스듬한 여인의 토르소"라 이름 붙여진 Future System의 점토 모형이 건물이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은 4개층에 240,000 sqf 규모의 백화점으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 가을 문을 연 동시에 영국의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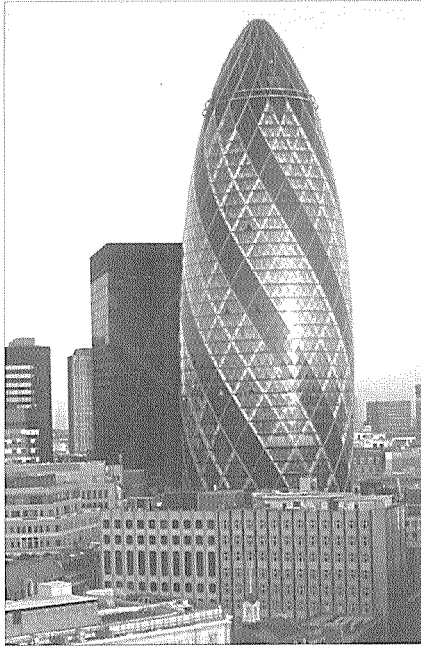
번째로 큰 도시인 Birmingham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건물의 곡선은 단순한 이미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부터 형성되어진 대지의 외곽선을 살린 것이다. 곡면 외피의 공사비를 일반 건물의 외피 수준에서 맞춰야 하는 것은 건축가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따라서 외피는 공장 제작이 가능한 패널을 맞춰서 전체를 형성하는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결국 메탈 판 위에 콘크리트가 스프레이 되어 면을 형성한 후 단열재가 부착되었으며, 그 위에 Yves Klein 푸른색의 스테코가 발라졌다. 15,000개의 아노다이즈 알루미늄 디스크가 그 표면을 덮음으로써, 비로소 반짝이는 드레사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다. 곡선 형태의 창과 문 또한 입이나 눈과 같이 신체적 유추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간판이 없이도 충분한 홍보효과를 만들어낸다. 일반적인 쇼핑센터에서 자연광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상품으로부터 뺏기게 하기 때문에 피하여 왔다. 그러나 Future System의 Kaplicky와 Levette는 천창을 두고 부메랑과 같은 형태의 아트리움을 통해 빛이 가득 유입되도록 하였다. 이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하는 효과가 있다. 상업시설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건축가는 강조하였다.

▶ Foster and Partners의 런던, 30st. Mary Axe

런던사람들은 지난 2년간 마치 탄알처럼 솟아올라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온 이 건물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곡면 형태는 지역적



Birmingham Selfridge 백화점



Mary Ax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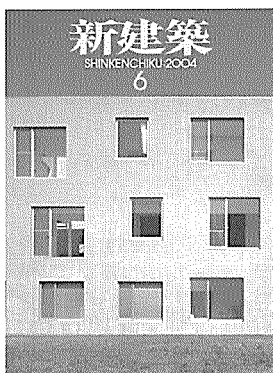
환경의 영향을 받아, 고도의 컴퓨터 모델링 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Foster 작품의 주요 특징이 되어 왔다. 이 타워의 형태는 고층 건물의 바람에 대한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으로 좁아지는 타워의 형태는 중세부터 형성된 좁은 거리로 연결되는 플라자에 그늘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 밖에 ▶SOM의 미국 Greenwich Academy가 소개되었다. (번역 / 전신영)

신건축

2004년 6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규모 집합주택을 다룬 「집합주택을 넘어서」와 금년 4월에서 10월



까지 일본 히마나코에서 열리는 꽃박람회에서 작

업한 「栗生明」팀의 작품들이다. 또한 작품 소개에서는 우리나라의 파주 출판단지 마스터플랜(승효상)과 키시와로와 김영섭이 공동 작업한 파주 SW 오피스가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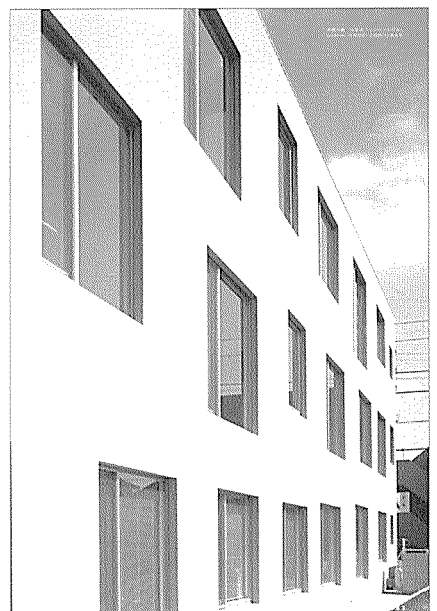
■특집: 집합주택을 넘어서

근년 SOHO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빌딩타입에 의한 분류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지만 이번 특집에선 어찌되었든 간에 생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단위들이 집적된 건물을 「집합주택」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 집합주택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현재 각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몇몇은 빌딩타입을 무색케 하면서 현상(現狀)의 문제에 대해 집중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3개의 집합주택 사례와 한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이 특집에서는 집합주택을 통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건축의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것은 한편으론 소위 '디자이너스 맨션을 타파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도시와의 관계 맺기나 공간단위의 만들기, 단위들 간의 관계성, 장소의 사용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드러난다.

▶ 디자이너스 맨션과 이에 대항하는 건축가들 일본에서는 최근 건축가가 집합주택을 설계하게 되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시기반 정비공단에서 시행하는 대규모의 집합주택에서 개인 주택에 걸맞은 규모의 부지에 지어진 소규모의 집합주택에까지 그 규모 또한 다양하다. 여기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하나의 현상은 이른바 '디자이너스 맨션'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가가 설계한 집합주택'이라는 의미인데, 이 '디자이너스 맨션'이라는 용어는 이미 일반 매스컴에서는 정착된 용어가 되고 말았다. 일반 잡지나 신문, 혹은 이메일 광고를 통해 건축가의 얼굴사진과 함께 디자이너스 맨션(일본에서 맨션은 고급 아파트를 칭한다, 역자 주)의 분양을 선전하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이와 같은 광고에 등장하는 건축가의 대부분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신건축지에 소개되는 건축가들을 이와 같은 광고에서 본 적

은 없다. 디자이너스 맨션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집합주택을 잘 치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2차대전 이래 전세계적으로 주택의 양적 공급을 전제로 해 왔던 집합주택이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나면 최후의 소비자인 거주자는 항상 건물이 완성된 후에 나타나며, 주택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했다. 최근의 이와 같은 경향도 결국 주택이 상품으로서 팔리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디자이너스 맨션과 같은 시류와는 거리를 두고, 소규모 집합주택의 질을 고민하는 건축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니시자와 류에의 「熊橋아파트먼트」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의 제기가 신선하다. 통상적인 경우 화장실과 주방을 압축해 가능한 한 넓은 원룸이 되도록 만들기 쉽지만 작은 규모의 주호를 3개나 4개의 공간구획으로 나누고, 욕실, 주방 및 식당, 거실, 침실 등이 등가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견베율을 높이고 대신 4층이 가능한 부지에서 층고를 높여 3층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이 이 주택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점은 전형적인 소형 집합주택의 모습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며, 작은 규모의 공간에서도 쾌적한 공간감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거주자 개성에 맞춘 공간을 꾸밀 수도 있게 한 것이다. 어떤 주호는 주호의 규모에 비하여 사치스러울 정도로 넓



熊橋아파트먼트

은 욕실을 지녔다. 또 다른 주호는 상대적으로 넓은 주방을 지녔으며, 또 어떤 주호는 거실이 넓다. 원룸을 단위공간으로 나누고, 이들 공간의 비중을 주호마다 다르게 계획함으로써, 원룸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화장실, 주방, 거실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원룸을 여러 단위로 쪼개면서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나, 높은 층고가 상당부분 이를 상쇄시킨다. 또한 건물 앞 공지를 확보하는 대신 건물 중앙에 만들어진 두 개의 중정을 통해 주호로 진입하게하고, 좁은 각 실에 충분한 빛과 조망을 제공한 부분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치바 마나부(千葉學)의 'MESH'에서는 건축가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적용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엿보인다. 「艦橋아파트먼트」와는 달리 고급 맨션의 규모인 'MESH'는 디벨로퍼에 의한 일반적인 고급맨션과는 분명 구분되는 선을 긋고 있다. 화장실, 주방, 욕실 등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공간들은 한데 모아 계획하게 마련이나, MESH에서는 이들을 외벽 주위로 둘러서 배치하였다. 거실과 침실은 이들 공간이 만들어 내는 깊은 공간의 벽에 의해 침착하고 은밀한 공간으로 바뀌었으며, 주방과 화장실 및 욕실은 창을 통해 밝은 빛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내외부의 공간이 소통하는 장소로 설정되었다. 건축가는 창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달기를 거부하고 있다. 실내에서, 특히 주방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은



MESH



MESH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이다. 생활 공간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주변 이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거실과 침실을 둘러싼 공간의 켜가 생활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장막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건축가의 의지에 공감하느냐는 거주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사카모토 카즈나리의 「egota house A」는 원래 모두 4개의 주동이 건설될 계획으로 있으며, 이번에 소개된 A동은 그 1기공사에 해당한다. 「艦橋아파트먼트」와는 달리 간섭을 낮추어 최대한 공지를 확보하고, 1층을 반지하로 만들어 4층의 규모를 확보했다. '앞으로의 도시는 공기(空地)의 디자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카모토의 주택지 내 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으며, 전체 공간을 배치하는 기준이 되었다. 메조넷 형식으로 된 4개의 주호는 모두 적당한 채광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각 실에 열린 개구부의 크기 및 방향은 실내에서 조망되는 주변 공지의 크기 및 경관을 세심히 배려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에게서 도시주거지의 건축은 새로운 공지를 만들어내고, 주변 공지와 상호 작용하는 건축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egota house A

▶동시다발적인 출현

개개의 프로젝트는 고유의 부지에 각기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출현한 것이므로 무리하게 그것들로부터 공통점을 찾으려 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이처럼 독특하고 질 높은 「작은 집합주택」이 도시 속에 서로 간에는 맥락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도시 속에서도 흔치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만 하다. 예전에 「Innovation in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 the Netherlands and Japan」이라는 이벤트가 도쿄대학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서 네덜란드로부터 온 참석자의 말을 듣자면 도쿄에서 일어나는 집합주택의 현상은 정말로 신기한 일이라는 것이다. 최근에야 퍼블릭 하우징이 아닌 움직임들이 네덜란드에서도 나타나 그것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집합주택이라는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연동하고, 도시계획과 연동하는 것이었다. 이벤트의 세션이 끝나고 「東雲캐널코트 CODAN」을 방문하였는데, 개별 건축의 질적 수준 이전에 높은 밀도와 주호 유니트의 협소함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상당규모의 프로젝트를 건축가 주도로 만들었다는 점이 화제가 된 프로젝트였으나, 네덜란드와 같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컨트롤해 온 나라에서 본다면 부지의 설정이나 밀도, 주호의 규모가 아닌 단지 보잘 것 없이 작은 부분밖에 건축가에게 맡겨지지 않았다는 견해의 차이가 부각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에게는 「東雲」프로젝트조차 작고 국소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 절망하기보다는 '작은 것'에서 가능한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여러 프로젝트의 공약수라 하겠다.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모험이 가능하다는 점도 물론 존재하나, 이와 같은 개별성을 넘어선 보편성을 여러 가지 장소에서 획득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본에서 생성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설계에 에너지를 쏟은 작은 주택이 구미에서 붐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게 만든다.

(번역 / 강상훈)